정읍 미래 전략산업 지원책 발굴

시, 지역발전전략 브레인 스토밍
원자력연구원 등 6개 기관 참여
융복합 R&D 지원사업 과제 발표
기관 노하우 공유·개선방안 논의

지난 20일 정읍 첨단산단 내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정읍시의 '제3분기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전북연구개발특구인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대 국책연구소 등의 연구과제 발굴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자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첨단산단 내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는 김형우 부시장이 주재한 '제3분기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정읍시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 등 6개 기관에서 참여했다.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은 시가 지역 내 연구기관과 지역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사업을 공유·발굴·지원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지원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 이와 함께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연구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활용사업의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이후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기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시와 연구기관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정책개발을 충실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R&D 예산 합리화 기조에 따른 대외적 여건 변화 속에서 지역 과학기술의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은 "국가연구개발비의 감축 등 단기적 이슈 속에서도 꾸준히 협의체를 운영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소재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높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임실·순창, 승화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3개 시·군 광역 사용 협약…운영비 절감·화장장 부족 해소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 전북 동부권 3개 시군이 승화원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는 남원시·임실·순창군이 지난 19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는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인구 비율로 공동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승화원 광역사용 협약을 통해 승화원 운영 중 발생하는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경감되고 운영 능력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실군과 순창군은 향후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부터 관내 기준(사용료 6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구소멸 시대에 승화원 광역화 사업을 통해 3개 시군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생겼다"며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부권 3개 시군이 이렇게 '승화원 공동사용'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화장장 부족 해소는 물론 광역화를 통한 시간·경제적 부담까지 덜게 돼 3개 시군의 품격있는 장사문화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위기 청소년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군, 특별지원 대상 12명에 생활비

고창군은 고창읍 '월곡 꿈에그린커뮤니티' 광장에서 군 직영 전환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개소식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경찰서, 고창교육장 등 청소년 유관기관장,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상담사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2년에 문을 열고 30여년 동안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필요성이 커지면서 고창군이 지난 7월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소년센터 직영으로 앞으로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지역자원의 충실한 연계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맑고 건강한 고창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청소년안전망사업의 일환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12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9월중 의료비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 여권 발급 1년 새 4배

엔데믹에 여행 수요 늘어

남원지역 내 여권 발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각종 규제 해제 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관내에서 발급된 여권은 총 44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5건보다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남원시는 늘어나는 여권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을 재개한 상태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바쁜 생활로 업무 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야간 민원실은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남원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여권 신청·교부 업무를 비롯해 통합민원 서비스(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지적·토지·건축 등 제증명 발급)이용도 가능하다.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지역 내 여권 발급 신청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를 위해 시는 목요 야간 민원실을 다시 운영한다.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농어촌公 정읍지사 "한가위, 이웃과 함께"

복지시설 방문 기부금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하인호)가 21일 정읍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추석 명절맞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이날 고부면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자애원(이하 자애원)을 찾아 전북은행 정읍지원(지점장 송기택)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동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쳤다.

자애원은 약 90여명의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보호, 재활, 교육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생활능력향상과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하인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임진왜란 정읍 의병장 '민여운 선생' 학술대회

정읍시, 오늘 연지아트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민여운 선생을 업적을 재조명해 그를 선양하기 위한 전국 학술대회가 전북 정읍에서 열린다.

정읍시는 22일 연지아트홀에서 정읍문화유산연구회가 주최하고 민족문화연구소와 정읍학연구회, 전북대농악풍물굿연구소가 주관하는 '정읍 의병장 민여운 선생 업적선양 전국 학술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민여운(?~1593)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태인 고현내(현 칠보면) 출신인 정윤근 선생과 의병을 일으켜 김천·함안 전투, 진주성 2차 전투 등에 참전한 정읍의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민여운 선생의 업적을 학술적으로 드러내 재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학자 5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광주교육대학교 김덕진 교수가 나와 '호남의병과 정읍'이란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

이후 ▲광주전남연구원 김만호 책임연구원의 '의병장 민여운 선생의 의병 활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연구소 김익두 소장의 '정읍학의 입장에서 본 의병장 민여운 선생 관련 사료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전북대 사학과 박대길 박사의 '의병장 민여운 선생 선양사업의 방향과 방안' ▲유족대표·전 전북도교육청 민득기 사무관의 '유족의 입장에서 본 의병장 민여운 장군' 등 학술발표가 이어진다.

각 학술발표 후에는 지정 토론자와의 개별 토론, 민족문화연구소 김익두 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익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은 "정읍의 의인 열사들은 우리나라가 풍전등화로 흔들릴 때마다 의연히 들고 있어나 이 나라를 구하는 최전선에서 자신을 초개처럼 불살라 구국의 길에 헌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1의 의인의 고장 정읍에는 아직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 초야에 묻혀 계시는 수많은 의인 열사들이 계신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내 드높이고자 하는 의인 열사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 태인에서 거병하신 의병장 민여운 선생"이라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